

근대 프랑스어 설화집 기술 비교 연구

—‘심청’의 번역과 개작을 중심으로*

황인순*

<차 례>

1. 서론
2. 프랑스어 본 <다시 꽃 핀 고목>, <조선설화>, <거울, 불행의 원인>의 기술(記述) 특징
3. ‘심청’의 서사구조 분석
 - 1) <다시 꽃 핀 고목>에서의 ‘심청’
 - 2) <조선설화>에서의 ‘심청’
 - 3) <거울, 불행의 원인>에서의 ‘심청’
4. ‘심청’의 의미구조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한국 고전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의 번역과 개작의 양상을 논의하는 것은 최근 유의미한 연구 경향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1900년대 초반 프랑스어로 기술되어 출간된 한국문학 텍스트들을 범주화하고, 번역 및 기술의 지향을 통해 어떠한 특질이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꽃 핀 고목*Le Bois Sec Refleuri*>(1895), <조선설화*Cortes Coréens*>(1925),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1934)으로 프랑스어로 기술되어 출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꽃 핀 고목>은 홍중우의 창작물에 가깝고 <조선설화>는 가린의 러시아어판 <조선설화>(1889)를 페르스키가 재번역한 것이며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서영해가 엮은 설화집으로 모두 한국고전서사물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618)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대상으로 한 외국어 기술(記述)의 특질을 보여준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세 텍스트는 동일한 언어로 기술된 한국문학 텍스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기술, 혹은 번역의 맥락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심청’을 중심으로, 텍스트가 구현하는 의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다시 꽃 핀 고목>, <조선설화>, <거울, 불행의 원인>, 근대 한국문학 번역, 심청

1. 서론

한국 고전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의 번역과 개작의 양상을 논의하는 것은 최근 유의미한 연구 경향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1900년대 초반 프랑스어로 기술되어 출간된 한국문학 텍스트들을 범주화하고, 번역 및 기술의 지향을 통해 어떠한 특질이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꽃 핀 고목*Le Bois Sec Refleuri*>¹⁾(1895), <조선설화*Contes Coréens*>(1925), <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1934)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기술되어 출판되었다. <다시 꽃 핀 고목>은 홍종우의 창작물에 가깝고 <조선설화>는 가린의 러시아어판 <조선설화>(1889)를 페르스키가 재번역한 것이며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서영해가 엮은 설화집으로 모두 한국고전서사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기술(記述)의 특질을 보여준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세 텍스트는 동일한 언어로 기술된 한국문학 텍스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기술, 혹은 번역의 맥락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심

1) 원제목인 *Le Bois Sec Refleuri*라는 제목을 최근 완역된 본에서는 <다시 꽃 핀 마른 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시 꽃 핀 고목>으로 번역한다. 홍종우, 장정아 외 3인 역, 『번안소설2-심청전』, 박문사, 2017.

칭²⁾을 중심으로, 텍스트가 구현하는 의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90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 번역 연구들은 연구 자료와 대상의 점진적 발굴과 더불어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근대의 한국어 혹은 일본어 설화집들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연구가 대표적인 형태였다. 권혁래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기술의 담론성을 비교하는 다수의 연구³⁾가 있으며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로 출판한 <조선동화집>(1924),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과 더불어 소위 일제강점기 3대 동화집이라고 불리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⁴⁾ 혹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⁵⁾ 3대 동화집 뿐

- 2) '심청'의 전승은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 혹은 둘의 상호관계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심청을 선정했을 때, 그 소설적 특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흥중우나 서영해 등 한국어 번역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소설적 이야기의 축약으로서 텍스트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조선설화>와 <거울, 불행의 원인>는 명백히 설화집이므로 이 안에 수록된 심청에 소설적 변개의 맥락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심청전>이나 <심청가>라는 표현 대신 장르적 관점을 배제한 '심청'으로 이 서사를 명명하기로 한다.
- 3) 권혁래,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185~210쪽; 최윤정,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1920년대 『조선동화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87~314쪽.
- 4)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童話化)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90~121쪽;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광식,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 : 1926년까지 간행된 한글 설화집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443~471쪽; 김미영,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2011, 79~109쪽.
- 5) 권혁래,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3, 한국문학회, 2013, 27~57쪽; 백민정,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 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 고찰」, 『구비문학연구』 35, 한국구비문학회, 2012, 33~69쪽.

아니라 일본어 설화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⁶⁾들 역시 적지 않다. 영어로 기술된 설화집⁷⁾에 관한 연구 역시 최근 들어 활발하다. 오윤선의 연구들에서 일종의 이본으로서 영어본설화집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⁸⁾ 소설의 영문번역과 관련된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⁹⁾

그러나 일본어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기술 설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가린의 <조선설화>¹⁰⁾는 그중 비교적 주목받는 연구

-
- 6) 권혁래, 『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217~246쪽;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20,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13~40쪽; 이시준, 『1920년대 전후에 출판된 일본어 조선설화집에 관한 기초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265~282쪽.
- 7) 보편적으로 ‘영문설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른 외국어 설화들과의 개념 충위를 맞추기 위해 외국어 설화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풀어서 쓸 때에는 ‘외국어로 기술된 설화’로 쓸 것이다.
- 8) 오윤선, 『한국설화 영역본(英譯本)의 현황과 특징 일고찰 : <견묘쟁주설화(犬猫爭珠說話)>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1,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1, 207~239쪽; 오윤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 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23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2, 205~231쪽; 오윤선, 『19세기말 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화회, 2014, 145~179쪽; 오윤선, 『외국인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우리문학연구』 43, 우리문화회, 2014, 191~228쪽; 오윤선, 『영문 한국전래동화의 한국설화 다시쓰기 양상 -<콩쥐팥쥐 이야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387~420쪽.
- 9) 이상현, 『문혀진<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이상현·이진숙·장정아, 『<경판본 흥부전>의 두 가지 번역지평 : 알렌, 쿠랑, 다카하시, 게일의 <흥부전>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357~412쪽; 전상욱, 『<춘향전> 초기 번역본의 변모 양상과 의미-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119~147쪽; 최지희, 『알렌 『토끼전』 영역(英譯) 과정에서의 변개지점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80, 2017, 421~454쪽.
- 10) 강재철, 『러시아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 조사자와 제

대상이었으며 최근 홍종우의 <다시 꽃 핀 고목>¹¹⁾의 완역과 개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른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에 관한 개별 연구들은 간헐적이거나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언어적 선택에 따라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언어 자체가 가지는 담론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번역은 복합적인 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번역과 기술의 면밀한 양상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각기 다른 기술 태도를 보이는 프랑스어 본 텍스트들에서 구현된 ‘심청’을 통해 그 의미작용을 분석할 것이다.

2. 프랑스어 본 <다시 꽃 핀 고목>, <조선설화>, <거울, 불행의 원인>의 기술(記述) 특징

세 설화집은 모두 한국문학 텍스트의 ‘번역’물로서 범주화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모두 같지 않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고전문학 텍스트들이 다수 번역되었는데, 이는 사전적인 의미의 혹은 현대적 의미의 ‘번역’과는 의미망이 다소 다르다. 특히 근대는 번역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대로, 초기 번역

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237~284쪽;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 - 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251~284쪽;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 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2008, 261~297쪽.

- 11) 장정아,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 -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refleuri』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09,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167~191쪽; 장정아·이상현·이은령,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Ⅱ):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refleuri와 볼테르 그리고 19세기 말 프랑스문단의 문화생태』, 『한국프랑스학논집』 95, 한국프랑스학회, 2016, 83~111쪽.

과정에서 번역, 개작, 창작 등의 개념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성윤은 “1910년-2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도 저(著), 작(作), 역(譯), 번안(翻案) 등의 개념 중 ‘저작과 번안의 경계’, ‘번역과 번안의 경계’가 쉽사리 구분되지 않음”을 지적한다.¹²⁾ 또한 고전소설 혹은 설화 중 구술성을 배제한 텍스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채록하고, 다른 언어로 변환하고,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이해되도록 운색하는 과정이 융합적·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텍스트는 채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텍스트는 개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의 폭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다. 창작, 채록, 번역, 개작 등의 행위는 모두 다른 것이지만 이러한 양상이 연구대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이라는 용어 대신 연구대상의 복합적인 쓰기 태도를 포괄할 수 있는 ‘기술(記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문화적 번역과 유사한 의미로 보편적으로 원전을 두고 이를 언어적으로 변환하는 번역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이며, 특히 구술적 텍스트를 포괄한다는 지점에서 채록, 번안, 운색 및 개작 등과 같은 모든 행위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고전을 외국어로 기술하는 것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 차원의 변환과 ‘언어’ 차원의 변환이 그것이다. 한국 고전의 번역에서 채록, 개작 등은 ‘내용’ 차원의 변환에 해당하는데 이는 구술성을 가진 텍스트들을 기술할 때 필연적으로

12)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이 근대 번역의 특징임을 인지하고, 번역이라는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문화적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최성윤, 『근대 초기 서사 텍스트의 저작, 번역, 번안 개념에 관한 고찰 : 근대 초기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17-2,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3, 223쪽.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는 텍스트의 문학적 특징에 기반하는 변환이다. 반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차원의 변환 역시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두 층위의 변환이 완전히 구획되지 않는 것은 언어적 거리가 내용적 변환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어의 차이 때문에 독자가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환은 기술자의 시선을 고려하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된다. 문학과 문화로 포괄되는 내용의 차원을 한국고전서사의 변형이라 할 때 이를 바깥에서 보는 시선과 안에서 보는 시선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언어적 차원에서 모국어(프랑스어)를 하는 번역자가 프랑스어로 기술한 텍스트와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번역자가 프랑스어로 기술할 때 변형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의 기술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895년 작인 <다시 꽃 핀 고목>에서 홍종우¹³⁾는 번역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기메 박물관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이 책을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텍스트는 다른 두 텍스트에 비해서 변개의 정도가 매우 큰데, 한국의 고전들을 활용하여 이를 녹여 변형된 하나의 소설적 서사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홍종우의 <다시 꽃 핀 고목>은 그러므로 창작소설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독립된 하나의 소설로 보아야 하는데 ‘심청’은 소설 내부의 몇 개의 화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¹⁴⁾ 이는 한국고전의 내용을 잘 아는 번역

13) 저자 홍종우는 김옥균 암살로 알려진 인물로 프랑스에 1890년부터 1893년까지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종우가 개입한 대표적인 번역물 중 하나는 <다시 꽃 핀 고목>과 더불어 춘향전을 번역한 <춘향Printemps parfumé>인데, <춘향>은 로니(J. H. Rosny)와 홍종우가 공번역자이다. 서문에 로니가 홍종우의 도움을 받아 춘향을 번역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시 꽃 핀 고목>은 홍종우가 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가 이를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내용의 선택은 홍종우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겠지만 프랑스인 로니를 번역자로 올린 전작인 <춘향>의 작업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관점이 언어적 번역의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고 본다.¹⁴⁾ 따라서 내적 화자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이야기를 개작하여 이를 다른 언어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바깥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프랑스어 화자들의 시선이 번역 및 개작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당대의 프랑스 문학장의 환경이 홍종우의 개작을 복돋았을 것”으로 이해하는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¹⁶⁾

반면 두권의 설화집은 다른 기술 배경을 보여준다. 러시아인 가린-미하일로프스키가 1898년 조선에서 채록한 <조선설화>는 19세기 말의 설화 자료집 중 대표적 외국어 설화집으로 프랑스어 본은 이를 원전으로 하여 1926년 세르주 페르스키Serge Persky가 번역, 출판했다. 설화집에 수

14) 홍종우의 이러한 개작은 낮은 패턴은 아니다. 프랑스판 춘향전 역시도 그 개작의 양상이 상당하다. <다시 꽃 핀 고목>의 경우에는 제목을 아예 심청과는 달리 했기 때문에 개작의 의도를 어느정도 명시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전성우는 춘향의 경우에는 “춘향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도 이도령의 여장 모티프가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홍종우의 한국 소설 혹은 한국 서사 번역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바탕으로 그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전상욱(2014), 앞의 논문, 320~322쪽 참고.)

15) 홍종우의 프랑스어 번역 능력과 로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홍종우가 여전히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스에 체류했고 일본어 통역을 거쳐 기메 박물관에서 일했다”는 기록을 통해 홍종우가 전체의 번역서를 전혀 도움없이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에서 “<춘향> 번역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일본인 통역이 자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기도 하며, <다시 꽃 핀 고목>의 서문에서도 프랑스인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서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상욱(2014), 위의 논문, 312쪽.)

16) 장정아·이상현·이은령(2016), 앞의 논문, 107쪽.

록된 삽화는 중국인인 주평 Ju Peon이 그렸다. 페르스키의 텍스트는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원본을 상정한 번역이며 원본과 비교했을 때 큰 변형을 보이지 않는다. 번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실되거나 추가되는 지점들 정도가 포착되는 정도이다.

그런데 가린의 <조선설화> 원본은 조선의 설화를 번역을 통해 채록한¹⁷⁾ 후 이를 가린이 정리해 기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페르스키가 <조선설화>를 번역할 때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이미 ‘채록과 번역이라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조선설화’이다.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언어적 변환 모두 크지 않으나 대상으로 한 내용이 이미 외부의 시선을 통해 변형된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64개의 이야기가 수록된 가린의 <조선설화>와 비교해 프랑스어 본은 20개의 이야기만을 선택한다. 페르스키는 서문에서 이 축약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질 등을 설명하는데 그친다. 설화집이 “한국적 이야기의 중심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환상과 불가사의가 아이와 어른, 그리고 학자들에게까지 소구할 것”이라고 소개한다.¹⁸⁾

마지막으로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서영해¹⁹⁾가 프랑스어로 직접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5개의 한국의 설화들이 수록되어 1934년 프랑스

17) 가린의 <조선설화> 채록과 관련하여 “조선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통역관 P.N 김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꾼들로부터 조선설화를 직접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다. 가린의 조선 여행 과정에서 주로 북부지방의 이야기들을 채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하일 로프스키, N.G.가린,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260~261쪽.)

18) Ici, Nous sommes en Corée, dans la Corée millénaire... Par leur fantaisie et leur imprévu, ils chameront les enfants: les hommes faits les liront avec intérêt quant aux savants.”

Contes Coréens(<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8077631>) 8~9쪽 요약

19) 1945년 임시정부 주프랑스 대표 등으로 광복 때까지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파리 체류 기간 중 한국 역사소설인 『어느 한국인의 일생 Autour d'une vie coreenne』과 설화집 『거울, 불행의 원인』 등을 펴냈다.

에서 출간되었다. 서영해가 채록을 통해 기술한 것은 아니며 알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의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채록도, 창작도 아니며 개작에 가까운데, 이러한 양상은 근대에 구성된 동화집들의 기술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관해 권혁래는 “심의린의 전래동화 채록 방식이 구비문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나 김경희는 “전래동화의 구성은 구비문학적 채록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²⁰⁾고 지적했다.

이처럼 홍중우본은 내용적 변형에, 페르스키본은 구성을 포함하는 언어적 변형에, 서영해 본은 내용과 언어의 이중적 변형을 강조하는 기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내용의 변환: 한국문학(고전)			언어의 변환: 프랑스어	
	채록	개작	창작	기술 주제	기술상의 특징
홍중우	x	o	o	비-모국어 화자	모국어 화자 개입
페르스키	x(o-가린)	△(일부선택)	x	모국어 화자	
서영해	x	o	x	비-모국어 화자	

3. ‘심청’의 서사구조 분석

이처럼 서로 다른 세 텍스트들의 기술 특징은 텍스트들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심청’의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중우의 텍스트를 제외한 ‘심청’은 설화집에 수록된 각 편이다. 세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심청’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 13개의 서사단락으로 심청을 분절하고 그 기술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필 것이다.²¹⁾ 이는

20) 권혁래(2009), 앞의 논문, 119쪽; 김경희(2016), 앞의 논문, 5쪽.

심청의 탄생, 심청모의 죽음, 심청의 양육과 결식, 심청의 심봉사 봉양, 심봉사의 위기와 공양미 삼백석 시주 약속, 공양미 삼백석 시주 해결, 심청의 팔려감, 심청의 집 떠나기,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심청의 용궁행, 심청의 환생, 심청의 왕비되기, 심청과 심봉사의 만남이다.²²⁾

1) <다시 꽃 핀 고목>에서의 ‘심청’

홍종우의 <다시 꽃 핀 고목>은 다른 두 텍스트에 비해 개작의 목적이 뚜렷하다. 전체가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 별로 특정한 한국 고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청과 다양한 고전 소설의 화소들이 유기적으로 뒤섞여 하나의 완결된 소설을 기술하고 있다. 몇몇 소설의 모티프가 뒤섞여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서사의 전개가 일종의 변개된 가문소설, 혹은 영웅소설²³⁾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심청’은 주인공의 이름으로 직접 명명되며, 전체 서사구조가 전면적으로 차용

21) <심청전> 혹은 <심청가>의 서사단락 혹은 화소를 분절하는 경우에 그 분절은 본고에서 보다 훨씬 소상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경우 ‘심청’은 소설 혹은 판소리라는 비교적 장편의 서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면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설화적 변개가 주를 이루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서사단락의 구성을 보다 간략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22) 홍종우와 페르스키의 텍스트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홍종우의 소설은 한국어 완역본 “장정아의 3인 역, 『변안소설2-심청전』, 박문사, 2017”을 참고하였고 페르스키의 설화집은 가린의 한국어 번역본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과 대조했다. 서영혜의 설화집은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 원문이 그대로 수록된 1977년 새문사본을 대상으로 했다.

23) 소설에 활용된 전대 고전과 관련하여 장정아·이상현·이은령의 논문에서는 ‘<심청전>’을 비롯하여 <춘향전>, <백학선전>, <조용전> 등을 개작에 영향을 끼친 텍스트로 지칭하고 있다. 논의된 것처럼 다양한 전대 고전들이 <다시 꽃 핀 고목>의 개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는 논의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 있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이 이상 확장하지는 않기로 한다. (장정아·이상현·이은령(2016), 앞의 논문, 86~87쪽.)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소설의 가장 주된 서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텍스트는 한편의 완결된 소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고전도 독립된 텍스트로서 번역되거나 소개되지 않는다. 홍종우가 기술하고자 한 소설의 한 조각으로서 고전이 활용되며, ‘심청’ 역시 그렇다. 따라서 <다시 꽃 핀 고목>의 심청을 통해 분석해야 할 것은 ‘심청’의 개작, 즉 그 내용적 측면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꽃 핀 고목>에서는 심청뿐 아니라 심청 아버지 순현이 중심이 된다. 전체 서사는 순현과 그의 친구 상훈, 그리고 그 자녀들인 심청과 상성의 2대에 걸친 이야기로 순현과 상훈이 실패한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가 2대인 심청과 상성의 합작을 통해 구현된다는 구성이다.²⁴⁾ 심청 서사가 개입하는 것은 2장, 6장, 10장으로 부분적이지만 이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청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서사를 모두 활용한다. 심청의 아버지인 ‘순현’이 유배를 당한 것으로 설정되고 이 과정에서 심청이 태어나지만 심청의 어머니가 죽고,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기로 결정하는 것까지가 2장의 내용이며 심청의 환생과 왕과의 만남, 연애와 결연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6장,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심청이 재회하는 것이 10장이다. 차용된 심청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24) 다시 꽃 핀 고목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서사는 순현부와 그 딸 심청의 이야기와 순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상훈 부부와 그 아들인 상성의 이야기, 두가지가 교차되는 구조이다. 순현은 충성스런 대신이지만 역심을 품은 재상 자조미(Ja-Jyo-Mi)에 의해 유배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된 동료 상훈과도 이별한다. 이후 순현부부는 딸 심청을 낳고 심청은 기존 심청 이야기의 주인공과 유사하게 눈 먼 순현을 돌보고 공양미 삼백석을 구하기 위해 팔려가며 결국 재상에 의해 고립된 왕을 만나 왕비가 된 후 아버지를 찾는다. 또한 상훈의 아들인 상성은 부모의 죽음 위기에서 구출되어 자라게 되고 이후 장소저와 부부의 연을 언약하며 후에 왕과 심청을 만나 왕의 조력자가 된다.

번호	서사단락	내용	
1	심청의 탄생	홍종우	순현 부부가 유배를 간 후 딸이 태어났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만큼 기쁨이 컸다.
2	심청모의 죽음	홍종우	아이를 낳고 심청의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 사흘만에 세상을 떠나다.
3	심청의 양육과 결석	홍종우	심청은 유모의 손에서 자라지만 이후 슬픔에 빠진 순현이 봉사가 된다.
4	심청의 심봉사 봉양	홍종우	청이는 열세살이 되어 눈먼 아버지를 봉양해야 했고, 구걸을 해서 아버지를 부양한다.
5	심봉사의 위기와 공양미 삼백석 시주 약속	홍종우	동냥을 간 청이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청이를 마중나갔는데 집 근처 호수에서 발을 헛디더 물에 빠진다. 이를 본 “은거 수도자의 제자가 아버지를 구한 후 시력을 되찾고 재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공양미 삼백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순현이 이를 약속하다.
6	공양미 삼백석 시주 해결	홍종우	심청이 이를 듣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위로한 후 꿈을 꾸다. 노인이 누군가 나타나서 심청에게 제안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라 하다.
7	심청의 팔려감	홍종우	상인들이 황해를 건너기 위해 제물을 찾는데 심청이 쌀 삼백석에 자신의 목숨을 팔다.
8	심청의 집 떠나기	홍종우	아버지는 이를 모르고 일을 하러 팔려가는 줄 알았으나 떠나기 직전 목숨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웃들이 이를 알고 탄복하여 아버지를 돌봐주기로 한다.
9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홍종우	심청은 고요히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물로 떨어졌는데 바다 거북에게 부딪혀 목숨을 건진다. 등에 업혀 잠든 동안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거북이와 동행하라고 하다.
10	심청의 용궁행	홍종우	거북이가 심청을 지하의 어떤 땅 속에 내려주고 사라지다.
11	심청의 환생	홍종우	도착하니 약병 두 개가 있었고 이를 마신 청이가 암벽을 기어 올랐는데 그리로 나오니 거대한 나무의 텅빈 줄기 속으로 나오게 된다. 나온 곳은 어느 집의 정원 속이었다.
12	심청의 왕비되기	홍종우	심청이 도착한 집은 계약에 빠져 유배를 당한 왕(의 적자)가 머무는 곳이었고 왕은 심청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부부는 상성의 도움을 받아 왕좌로 복귀한다.
13	심청과 심봉사의 만남	홍종우	삼년이 지났으나 눈을 뜨지 못한 심청의 아버지는 봉사로 살고 있었는데 왕이 온나라의 장님을 모두 연회에 초대한다. 아버지는 연회에서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며 눈길을 끄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 아버지를 알아본다. 심청이 자신임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뜨고 순현이 재상이 된다.

<다시 꽃 핀 고목>은 홍종우의 내적 시선에 의해 ‘심청’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저자가 기술한 것이다. 다만 개작과 번역의 과정에서 외부의 시선이 가장 적극적으로 혼용된 텍스트이므로 이와 같은 면모가 ‘심청’의 활용에서도 드러난다. 서사의 진행에서 크게 변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사단락 1,2에 해당하는 심청과 아버지 순현의 전사, 즉 신분과 서사 단락 9-11에 해당하는 심청의 환생이다. 홍종우본에서 주인공은 유배를 간 설정이기 때문에 심청 탄생의 배경과 이야기의 시작은 ‘평양(Hpyeng-Yang)’에서 시작해서 ‘강천섬(ile de Kang-Tjyen)’으로 이어진다. 순현은 간신배의 모략으로 귀양을 간 조정 대신이며, 귀양 이후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심청가(家)의 불행은 타고난 운명이라기보다 부정직하고 무능한 조정의 표류에 기인하는 것이다.

심청의 공간이동, 혹은 환생의 모티프가 가지는 환상성은 소개한 세 텍스트 모두에서 상당히 소거되어 있다. 홍종우 본에서도 심청은 물에 뛰어 들다가 ‘거대한 바다거북’에 부딪힐 뿐이다. 바다거북을 만나 거북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유배된 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심청’에서 심청의 죽음과 공간 이동이 매우 주요한 모티프라 할 때 이는 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꽃 핀 고목>에서 변형된 이동의 양상은 심청의 재생보다는 죽지 않음을 암시적으로 강조하면서 심청의 인당 수행과 그로 인한 공간이동을 왕에게 이르기 위한 여정으로 구현한다. 순현의 유배로 인해 조력자를 잃은 왕은 심청의 공간 이동으로 인해 다시 자신의 조력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받게 된 셈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꽃, 혹은 연꽃이 구현하는 상징성 역시 매우 생략되었는데 홍종우의 본에서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부분에서 심청을 장미(rose)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왕으로의 이동과 만남의 맥락에서 꽃이 생명이나 적어도 결연의 상징

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기술한 창작소설의 조각으로서 ‘심청’을 일부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홍종우본은 그러나 동시대의 문학적 경향과 완전히 유리되지는 않는다. 이는 기술자가 유지하는 내적 화자로서의 관점, 혹은 문화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최진형은 근대의 심청 소설 변용과 관련해 “<강상련> 계열은 심청전의 효 이데올로기를 비교적 답습하고 있으며 <신문관본 심청전>은 그 적강화소를 중심으로 한 심청의 형상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몽금도전>의 경우에는 몇가지 유표적인 화소가 드러나는 특이한 개작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몽금도전>에서 나타나는 유표적 화소는 ‘심청이 물에 빠졌으나 큰 배의 과편에 몸이 걸려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는 홍종우 본의 ‘바다거북에 부딪히는’ 것과 유사한 변형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유사성으로 두 텍스트간의 상관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문학에서 나타나는 변용과 완전히 유리되지 않았음을 암시할 수는 있다.²⁵⁾

2) <조선설화>에서의 ‘심청’

<다시 꽃 핀 고목>에서의 ‘심청’은 심청 이야기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홍종우가 기술한 일종의 창작 소설의 모티프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조선설화>와 <거울, 불행의 원인>은 설화집이라는 텍스트의 특질에 맞추어 실제 심청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조선설화>가 다른 두 텍스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번역’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진 텍스트라는 점이다. 페르스키본에서는 가린본과 비교할 때 언어적 번역 상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25) 최진형, 「<심청전>의 전승 양상- 출판 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19, 2005, 189~207쪽 참고.

않으며 비교적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²⁶⁾ 다만 가장 적극적인 변형이 나타난 것은 설화집의 구성인데, 가린본에 60여개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에 비해 20개의 이야기만을 축약해서 수록했고 그 배치와 순서를 전면 수정했다. 따라서 <조선설화>에 수록된 ‘심청’에서는 홍종우본에 서처럼 개작의 양상보다 프랑스어본 <조선설화>의 체계 안에서 ‘심청’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순서	제목(프랑스어본)	제목(러시아어본)	순서	제목(프랑스어본)	제목(러시아어본)
1	여덟번의 불운 Le Huit - Fois - Malheureux	<u>팔자가 사나운 사람</u>	11	아저씨 L'Oncle	아저씨
2	예언자 Le Devin	무엇이든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는 사람	12	양씨와 돌이씨 Nian et Tori-Si	양과 도리씨
3	심청 Sim-Tchen	심청	13	고양이들 Les Chats	고양이들
4	공자 Confucious	공자	14	<u>볼매(월매)</u> Volmaï	<u>월매</u>
5	화가 L'Artiste	어느 화가	15	비열한 친구 Un ami indigne	무가치한 친구
6	니무에이 Ni-Mouéï	이무에이	16	새의 언어 Le Language des oiseaux	새의 말
7	<u>고씨와 기리씨</u> Ko et Kili-Si	<u>고씨와 길레</u>	17	고아들 Les Orphelins	고아들
8	연못(제비꽃 연못) Nen-Moi(Le marais des violettes)	<u>연못(제비꽃 연못)</u>	18	두 개의 돌 Les Deux Pierres	두 개의 돌
9	차복이 Tchapoghui	차복이	19	하인의 아내 La Femme de l'esclave	하인의 아내
10	<u>지네</u> La scolopendre	<u>또다른 지네 이야기</u>	20	맹세 Le Serment	맹세의 서약

26) 제목의 일부는 프랑스어본과 러시아어본에서 다소 다르게 기술되었지만 원문에서는 유의미한 변개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페르스키의 <조선설화>의 구성을 따로 떼어보면 동시대 다른 설화집들과 크게 유사한 구성을 찾을 수 없다. 프랑스어 화자인 페르스키가 한국설화집을 포함한 한국문학의 경향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결국 이 책의 구성은 문학적 이해도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낮은 대상을 접하게 된 역자 겸 편자의 바깥의 시선으로 선택한 것을 드러내는 측면이기도 하다.²⁷⁾ 그러나 서문에서 페르스키가 한국의 개별 풍습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외적 화자의 시선에서나마 이에 가장 적절한 이야기들을 선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안에 ‘심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페르스키의 <조선설화>에서는 선택된 ‘심청’의 해석을 바탕으로 프랑스어본 <조선설화>가 지향하는 담론적 태도를 추론해 보았다. 페르스키의 ‘심청’은 목록의 세 번째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번호	서사단락	내용	
1	심청의 탄생	페르스키	송나라에는 가난한 장님 노인이 아내 Vansiton와 살고 있었다. 자식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다. 마침내 딸이 태어났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2	심청모의 죽음	페르스키	딸이 태어난지 여드레째 날 어머니 Vansiton이 세상을 떠났다.
3	심청의 양육과 결식	페르스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젓동냥을 했고 심청은 절세미인으로 자라났다.
4	심청의 심봉사 봉양	페르스키	아버지는 장님이라 심청의 미모를 알지 못했다.
5	심봉사의 위기와 공양미 삼백석 시주 약속	페르스키	심봉사의 집을 지나가던 스님이 아버지에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을 바치겠냐고 질문해 아버지가 공양미 삼백석이라고 했다. 스님이 정말로 가능하냐고 물어 심봉사가 약속하자 쌀을 가져오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다.

27) 실제로 한국문학에 대한 페르스키의 이해 정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동시대의 다른 설화집들에 수록된 이야기 중 페르스키의 설화집에도 수록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영해의 설화집이 동시대의 다른 설화집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 통해서도 페르스키의 선택이 한국문학의 개별성에 기인한 당위보다는 문학 서사의 보편성에 기인한 흥미에 더 가까웠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6	공양미 삼백석 시주 해결	페르스키	심봉사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찾지 못해 식음을 전폐했다. 심청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자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심청은 방법을 찾겠다고 한다.
7	심청의 팔려감	페르스키	바다에 풍랑이 일면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러 온 상인들이 나타나자 심청이 자신을 팔 삼백석에 팔다.
8	심청의 집 떠나기	페르스키	심청은 떠나기 전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린다. 잠이 깬 심봉사는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일을 되돌리려고 하나 쌀을 이미 절로 보냈다. 심청은 심봉사를 위로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심봉사를 부탁하고 떠난다. 마을 촌장이 심청의 효성을 칭송하고 심봉사를 돕기로 했다.
9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페르스키	폭풍우가 일자 심청은 정희수를 떠놓고 기도한 후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상인들이 심청을 <u>장미</u> 와 <u>같다</u> 고 말했다.
10	심청의 용궁행	페르스키	수증왕궁으로 가서 3년의 세월이 흘러 심청은 지상의 생활을 잊었다.
11	심청의 환생	페르스키	상인들이 예전 심청이 빠진 바다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발견하다. 심청이 <u>장미</u> 로 <u>변했다</u> 고 <u>믿고</u> 이를 건져 오다.
12	심청의 왕비되기	페르스키	왕이 아파 가장 아름다운 장미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상인이 왕에게 꽃을 팔았다. 바다의 신이 심청을 무지개에 태워 궁궐 정원에 데려다주었다. 심청이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때 왕이 심청을 발견하고는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한다. 기억을 잃었던 심청은 혼례를 올리고야 자신이 누구이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는데 일찍 기억을 찾았다면 그녀는 왕비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양반가문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심청과 심봉사의 만남	페르스키	심청은 기억을 떠올리고 아버지를 찾고자 하다. 모셔온 아버지는 앞을 볼 수 없게 된 상태였고 심청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하며 부녀가 상봉한다.

페르스키 본은 홍중우 본에 비해 개작의 정도가 덜 하지만, 서영해 본과 비교해서 효녀인 심청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심청은 여전히 효심이 지극하며 이 덕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심청의 효심 뿐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심청의 특질 역시 강조되며 이를 통해 특별한 결연의 대상, 즉 왕의 배필이 되는 부분이 강조된다. 심봉사 역시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하여 심청을 인당수에 빠지게 하지만, 먼저 눈을 뜨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황을 알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등, 무기력하다기보다는 다소 불운한 인물로 기술된다. 무기력하고 다소 어리석은 아버지와 대비될 때 심청의 효심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효녀’로서의 특질을 약화시키는 담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사단락 13에서 부녀의 재회를 기술할 때에도 심봉사는 공양미 덕에 이미 눈을 뜬 상태로 이때문에 결말에서의 부녀 상봉의 극적 효과는 다소 약화된다. 또한 홍중우 본에서처럼 재생의 모티프나 종교적 모티프를 배제하는 편이다. 그러나 앞서에서처럼 재생과 지상-수중 세계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수중왕국, 즉 용궁의 존재를 통해 심청이 수중왕국으로 떨어져 지상의 기억을 잊고, 바다의 신, 즉 용왕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청은 꽃 ‘속에서’ 환생하는 것은 아니다. 심청에게 몸값을 지불한 상인들이 심청이 장미²⁸⁾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왕에게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결연의 상징으로는 기능하지만 재생 혹은 생명의 은유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설화>의 ‘심청’에서 강조되는 것은 효심보다는 결연이며, 신분의 차이 때문에 왕과의 결혼이 어려웠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 역시 이러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질곡 속에서 ‘벗어나 나뉠대로의 의지와 신실함으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찾는 이야기’로서 해석된다. 물론 <조선설화>에서 구현된 ‘심청’은 사실 페르스키가 해석한 ‘심청’이 아니라 가린이 해석한 ‘심청’이며 수록된 다른 이야기들 역시 그렇다. 그러나 적어도 가린이 채록한 ‘심청’을 결연에 집중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프랑스어본에 수록한 것은 가린이 해석한 ‘심청’에 대한 페르스키의 동의일 수도 있다. <조선설화> 프랑스어본은 홍중우나 서영해의 저작에 비해 편자 및 역자의 관점이 적

28) 서영해 본에서는 연꽃(lutus)이라고 명시되며 페르스키 본에서는 장미(rose)로 기술된다. 러시아판 <조선설화>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장미를 ‘강선화’로 번역하고 있으나 프랑스어 본에서는 단순히 장미(rose)로 기술했기에 그대로 번역한다.

극적으로 드러나기 어렵지만, 선택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의 이야기’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3) 〈거울, 불행의 원인〉에서의 ‘심청’

홍종우가 ‘심청’을 어떻게 변형했고, 페르스키가 ‘심청’을 왜 선택했는지에 주목했다면 서영해의 ‘심청’은 어떻게 재구된 것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홍종우의 ‘심청’을 이해하는 관점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개작을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설화의 집성이라는 집필의 목적이 있고, 원전을 상정한 번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서영해의 설화집은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이를 나름의 목록으로 구성한 것이다. 내적 시선을 가진 한국어 화자로서 한국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재구성의 과정에서 문화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모두 고려되었을 것이다.²⁹⁾

서영해의 설화집에서 유표적인 기술의 맥락은 이처럼 두 층위의 번역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인데, 원전을 상정한 번역이 아니며 동시에 엄격한 채록도 아니지만 전대 문헌의 그것과 일정정도와 연관된다. 수록된 이야기들의 선택에서도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 혹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과 겹치는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³⁰⁾

29) 서영해 설화집의 담화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황인순, 『근대 프랑스어설화집의 기술 체계 연구 -〈거울, 불행의 원인〉을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45,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305~338쪽.

30) 손진태의 <조선민담집>은 154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었으므로 이 안에 수록된 이야기들과 서영해의 설화집 속 이야기들이 겹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울, 불행의 원인’, ‘기발한 거짓말’, ‘상가승무노인곡’, ‘수수의 얼룩’, ‘마법의 구슬’, ‘기적의 종’, ‘치약산’, ‘두꺼비의 보은’, ‘아미타불’, ‘비극적인 수수께끼’ 등 십여편의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서영해 설화집과 다른 설화집간의 전승관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순서	제목	순서	제목
1	거울, 불행의 원인 Miroir, cause de Malheur!	19	채두봉 Tchai du-Bon
2	윤회 이야기 Yun-Whai	20	우림 Oulin
3	심청 Sim-Tchum	21	혹보 Hoc-Bo
4	기생 홍련 Néuphar-Rouge	22	이진 Lieu-Jin
5	소중한 독약 Poison précieux	23	치약산 Tchi-Ac
6	절개없는 여자 Femme infidèle	24	토의 간 Le foie du lapin
7	초상 치른 고양이 Le chat en deuil	25	착한 바보, 마십 Maship, la bonne bête
8	기발한 거짓말 Un ingénieux mensonge	26	개구쟁이 꼬마 L'enfant Polisson
9	상가승무노인곡 Sanga-Singmou-Loinkoc	27	두꺼비의 보은 La reconnaissance d'un crapaud
10	수수의 얼룩 Les taches du sorgho	28	이돌이 Li Dory
11	김기수 Kim kisou	29	아이 눈물의 위력 La puissance des larmes d'enfant
12	홍부놀부 Hunghou-Norbou	30	아미타불 A-MI-Ta-Boul
13	천안 삼거리의 능수버들 Les saules pleurers du carrefour Tchun-Ansan-Gry	31	비극적인 수수께끼 Une énigme tragique
14	마법의 구슬 La bille magique	32	석상의 기억 Une statue mémorable
15	잃어버린 편지를 어떻게 찾았을까 Comment on trouve les papiers perdus	33	비밀스러운 도지사 Un préfet mystérieux
16	기적의 종 La cloche miraculeuse	34	영민한 꼬마 L'enfant terrible
17	여우와 호랑이 Le renard et le tigre	35	한국의 전설 Une légende coréenne
18	희귀한 판결 Un curieux jugement		

페르스키의 프랑스어본이 가린의 러시아어본 설화집이 구성한 담론 체계를 계승한 것으로 본다면, 서영해의 설화집의 구성은 이 텍스트가 독립적으로 구축한 담론의 체계이며 ‘심청’은 그 체계 내에서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서영해의 설화집은 앞서의 두 텍스트에 비해 근대적 의미의 한국 문학 이본이라는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심청’ 역시 그런 차원에서 기술되었다.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번호	서사단락	내용	
1	심청의 탄생	서영해	황주 도화동에 심봉사가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늘 걱정했는데, 어느날 그의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 심봉사의 부인은 딸을 낳았는데 심청이라고 이름 지었다.
2	심청모의 죽음	서영해	심청이 태어나고 며칠 후, 심청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3	심청의 양육과 결식	서영해	마을 사람들은 가엾은 심봉사와 딸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었다. 심청이 열다섯살이 될 때까지 심봉사는 딸을 이렇게 키웠다.
4	심청의 심봉사 봉양	서영해	열다섯이 된 어린 심청은 이제 알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쌀을 얻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가엾은 소녀의 효행을 칭송했다.
5	심봉사의 위기와 공양미 삼백석 시주 약속	서영해	심봉사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개울로 굴러 떨어졌다. 근처 절의 스님이 지나다가 심봉사를 구해주었다. 심봉사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이에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라고 응답했다.
6	공양미 삼백석 시주 해결	서영해	집에 돌아와 심봉사는 딸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을 말했다. 심봉사가 미안해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자 심청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야기를 들은 심청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흐느끼며 슬프고 비통해했다.
7	심청의 팔려감	서영해	물건을 사러 삼년마다 오는 중국거상이 어리고 예쁜 소녀를 사러왔다. 끔찍한 미신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황해에 젊은 처녀를 바치면 무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심청은 공양미 삼백석에 자신을 판다.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고 눈을 뜬다음 나머지 백석은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 남겨둔다.
8	심청의 집 떠나기	서영해	옆마을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공양미를 받기로 했다고 하자 심봉사는 아이처럼 울었다. 딸에게 자주 들리라고 당부했고 한편 심청은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며 고요히 운다.

9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서영해	바다 한가운데 몸을 던져야할 지점에서 중국상인들은 심청을 바다로 던졌고 심청은 울며 파도 속으로 사라진다.
10	심청의 용궁행	서영해	중국 상인들이 심청을 물에 빠뜨렸지만, 심청은 기적적으로 거대한 연꽃 안으로 떨어졌다. 심청은 그것이 저승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11	심청의 환생	서영해	조선의 사신이 중국 수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황해를 건너고 있었다.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연꽃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 올랐다. 사신은 크게 놀라 그 꽃을 따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연꽃을 바친다.
12	심청의 왕비되기	서영해	임금은 연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궁안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연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연꽃 송이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다. 아직 젊었으나 몇 달 전 왕비를 잃은 임금은 심청과 사랑에 빠져 심청을 왕비로 맞겠다고 선언한다.
13	심청과 심봉사의 만남	서영해	심청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궁에서 앞모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열흘쯤 지나 더듬거리며 궁으로 들어오는 심봉사를 발견했다. 심봉사는 딸 청이의 목소리를 듣고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동으로 눈을 뜨게 된다.

서영해 본의 ‘심청’은 다른 두 텍스트에 비해 다소 전형적인 서사로 구성된다. 전형적이라는 것은 전대 문헌이나 동시대 문헌에서 반복되는 모티프들이 상대적으로 더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서사단락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야기의 배경은 황주 도화동이다. 서영해 본에서 심청은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의 왕비가 되는 존재로, 이는 그녀가 행한 효에 대한 응답이다. 심청의 심성으로 참고 인내하는 덕성인 효심이 강조되는데, 이는 앞모 보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해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하고도, 딸이 이 때문에 목숨을 버리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심봉사 덕에 더욱 예각화된다. 서영해 본에서 심봉사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심청을 보낸다. 심청은 끝내 아버지에게 이를 밝히지 못하고 떠나는 인물로 효성이 깊다는 것을 강조한 앞부분의 서사 단락들과 연결된다. 반면 이를 알지도, 막지도 못하는 심봉사는 무력한 아

버지이다. 스스로 앞 못보는 상태를 원망하고 심청이 팔러가는 줄 알지 못하던 무기력한 아버지였던 심봉사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로 심청과 재회해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연성을 보완하거나 근대적 관점을 드러내는 내용적 층위의 변용은 내적 화자의 관점에 기반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타난다. 서영해가 구성한 ‘심청’은 이상 세 텍스트 중 효녀, 신실한 딸로서의 심청을 가장 강조하는 내용을 따르면서도 그 문화적 거리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언어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차용한다. 효녀인 심청을 강조하면서도 서사단락 5-7에서 심청은 아버지에게 걱정과 비통의 감정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서사단락 7에서 심청은 공양미 사백석을 받기로 하고 남은 백석을 아버지를 부양하는 몫으로 따로 남겨둔다.³¹⁾ 또한 산 사람을 제물로 파는 부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방식의 설명이 나타난다. 상인이 중국인이라고 명시하며 중국 상인들의 인신 매매에 대해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기술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끔찍한 미신이지만, 어느정도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을 보태는 형식이다.³²⁾

앞서의 두 텍스트에서처럼 환생이나 불교적 윤회, 삶과 죽음의 이항대립이 적극적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서영해 본에서도 지상세계-수중세계로 이어지는 구도, 혹은 삶-죽음의 구도로 대립되는 환생의 모티프는

31) 초기 <심청전>에서는 이 액수가 적게 나타나지만 완판본을 중심으로 이 액수가 백석 이상으로 커진다는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우의 본에서도 공양미 ‘사백석’ 설정을 찾아볼 수 있다.

서유경, 『초기 <심청전> 연구』, 『관소리연구』 37, 관소리학회, 2014, 97쪽.

32) 이러한 류의 주석들이 서영해의 설화집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 서양의 시각에서 혹은 본인의 합리적 판단 아래에서 납득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지점들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³³⁾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꽃 안으로 떨어졌다는 기술은 공간의 이동을 추측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삶과 이계로 대비되는 두 공간의 대립 구도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한 연꽃으로 들어가고 그 연꽃을 통해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환상성의 구현을 통해 불교적 환상성은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4. ‘심청’의 의미구조 분석

이처럼 프랑스어 본 텍스트에서 기술된 ‘심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재생과 환생이라는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의 이항대립구도가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³⁴⁾ 그러나 그 기술의 맥락이 다면적이기 때문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기술의 태도와 변용의 양상이 각기 다른 이 텍스트들이, 왜 공통적으로 ‘심청’을 수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오윤선은 영문 한국설화집의 기술양상을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이야기 순으로 정리한 바 있다. “견묘쟁주 설화, 흥부놀부, 단군신화, 별주부전, 콩쥐 팥쥐, 선녀와 나무꾼, 두더쥐 사위, 심청전, 흥길동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이 빈도수가 높은 10개 작품”으로 지적하며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은 “영어 원어만만 번역한 작품으로 별주부, 콩쥐팥쥐, 심청

33) 열세개의 서사 단락이 두 설화집 모두에서 동일하게 시간순서대로 연결되는 반면, 심청의 수중공간행과 관련된 이 단락만이 순서가 다르다. 서영해본에서는 바로 꽃속에서 발견되고 그 이유가 기술되는 순서, 즉 9-11-10 서사단락 순이고, 가린-페르스 키본에서는 9-10-11 서사단락 순이다.

34) 성현경은 ‘설화’적 심청의 특징으로 “적강화소를 중심으로 한 심청의 신성성 구현과 수중세계와 재생모티프를 기반으로 한 의례성”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화소들은 프랑스어역 ‘심청’에서 대부분 삭제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성현경, 『〈沈清歌〉의 형성과 변모 과정』, 『고전문학연구』 9, 1994, 한국고전문학회, 241쪽.)

전, 춘향전 등은 한국인 번역본의 경우 소설이라고 인식되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³⁵⁾ 그러나 프랑스어본의 경우에는 한국어 화자인 홍종우와 서영해의 저서에도, 프랑스어 화자인 페르스키의 번역본에도 소설 계열인 심청이 실려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어찌 보면 이는 단순히 근대, 즉 1900년대 전후 심청의 대중적 인기와 관련된 선택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진형³⁶⁾은 “1912년부터 1930년까지 간행된 활자본 고전 소설 중 <심청전>이 33회 간행”되었다고 언급한다. 당시 소설 중 <심청전>이 꽤 대중적인 텍스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페르스키의 번역 원본이 된 가린의 <조선설화>는 1889년의 텍스트로 1900년대의 심청전보다는 전대의 채록본이지만, <심청전> 혹은 <심청가>의 대중성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유효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으로서의 ‘심청’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고 있는 홍종우와 서영해의 선택은 이러한 근대적 경향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페르스키는 가린의 텍스트를 재번역한 것이지만, 그 중 굳이 ‘심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앞뒤로 이어지는 프랑스어 기술 한국문학 텍스트들의 출판에서 ‘심청’이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이처럼 프랑스어로 기술된 ‘심청’은 유사한 서사 단락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그 최종 서사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구현한다. 이는 기술의 주체들이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개별적 대응의 양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선적으로 기술주체의 세계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라도, 왕조의 복원을 통해 근대 이후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홍종우의 관점과, 낯선 세계의 근대를 낯선 그대로 바라보는 페르스키의 관점, 그리고 이미

35) 오윤선(2014), 앞의 논문, 156~158쪽.

36) 최진형(2005), 앞의 논문, 189~207쪽.

소실된 근대를 다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복구하고자 했던 서영해의 관점들은 명백히 다르며, 이는 같은 텍스트를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암시된다.

기본적으로 심청에 집중되기보다는 순현을 중심으로 한 심청가(家)의 복권을 기술하고 있는 홍종우의 텍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재생과 죽음이라는 상징적 모티프를 배제하고 새로운 세계의 지향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구축이라는 서사적 목표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순현의 세계 인식과 지향이 지연되어 구현되는 결말로 끝나는 소설적 텍스트에서 심청은 기존에서처럼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는 효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계승자로서, 그리고 왕과 순현을 이어주는 일종의 매개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아버지의 세계는 건재하며, 또한 순현의 목소리를 빌려 이상적 치세를 논하는 결말은 결국 “황제중심의 근대화를 추진했던”³⁷⁾ 홍종우와 프랑스 조력자들간의 낙관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무기력한 아버지였던 심봉사가 운명을 넘어 돌아온 심청을 만나서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서영해의 ‘심청’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만 했던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부정적이지만 완전히 비판적이지는 않은 의지로도 읽힌다. 서영해의 ‘심청’에서도 생략된 재생의 환상성은 그러므로 홍종우와는 다른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가인 서영해가 이해했던 근대적 합리성의 일환일수도 있다. 페르스키의 선택은 다른 두 텍스트에 비해 훨씬 소극적인 맥락이지만, 결연의 이야기로 심청을 읽어갔을 때 이는 오히려 아버지의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번역자가 동의한 근대 한국의 지향은 이와 가까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37) 장정아(2017), 앞의 논문, 189쪽.

5. 결론

본고에서는 1900년대 초반 간행된 프랑스어 본 한국고전서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기술의 특질과 의미구조를 분석했다. 특정한 언어로 낯선 대상을 기술하는 데에는 관습화된 시선이 개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기술하는 주체가 개별의 시선으로 대상을 인지한다면 번역 및 기술의 범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어로 기술된 동화집과 일본어로 식민지 동화집 사이에는 언어적 선택에 따라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그러나 다양한 텍스트들을 단순히 제국주의적 시각 혹은 민족주의적 시각이라는 규정 아래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프랑스어로 기술된 한국 문학 출판물을 통해 이처럼 번역 및 기술의 맥락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내용을 변용하고 어떻게 언어를 매개하는지를 통해 구획된 기술자의 시선은 ‘한국문학’ 혹은 ‘한국의 이야기’라는 대상을 동일한 언어인 프랑스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결을 형성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문학을 둘러싼 담론의 망, 즉 어떻게 한국문학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르며 궁극적으로는 근대와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고자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³⁸⁾ 본고의 논의는 ‘심청’이라는 공통서사에서 출발한 논의이지만 결국은 차이점으로 귀결되었다. 남는 것은 단순히 서사가 아니라 시선이며 근대 한국, 혹은 근대라는 혼란의 시기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시선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38)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정아는 “홍종우의 텍스트에 배태된 시선이 일종의 자기민족지적 이중의 시선”이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영혜의 텍스트에서도 특정한 ‘한국성’을 구현하는 것이 텍스트의 구체적 서술목표라고 지적한 논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해보고자 했다.

장정아(2017), 앞의 논문, 187쪽.

황인순(2017), 앞의 논문, 330쪽.

참고문헌

- 미하일로프스키, N.G.가린, 안상훈 역, 『조선설화』, 한국학술정보, 2006, 1~262쪽.
 블레스텍스, 프레데릭, 이향·김정연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7, 1~335쪽.
 홍중우, 장정아 외 3인 역, <심청전>, 『변안소설』 2권, 박문사, 2017.
 HONG-TJYONG-OU, Le Bois Sec Refleuri,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364928/f8.image>)
 So yong-hae, Mirio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Persky, Serge, Contes Coréens,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8077631>)
- 강재철, 『러시아 N.G. 가린의 개화기 한국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방법 : 조사자와
 제보자 및 후원자에 주안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237~284쪽.
 권혁래,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 『온지논총』 22, 온지
 학회, 2009, 185~210쪽.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童話化)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
 학사연구』 39,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90~121쪽.
 권혁래, 『손진대 『조선민담집』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논총』 63, 한국문학회, 2013, 27~57쪽.
 김광식,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발간에 대한 재검토 : 1926년까지 간행
 된 한글 설화집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443~471쪽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66쪽.
 김미영,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적 위상』, 『한민족어문학』 58, 한
 민족어문학회, 2011, 79~109쪽.
 김은영, 『서양인이 읽은 조선 : 조불조약 체결(1886) 전 프랑스에서 생산된 출판물
 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99, 한국서양사학회, 2008, 201~237쪽.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21, 한국구비
 문학회, 2005, 165~208쪽.

- 백민정,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 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 고찰」, 『구비문학연구』 35, 한국구비문학회, 2012, 33~69쪽.
- 서유경, 「초기 <심청전> 연구」, 『판소리연구』 37, 판소리학회, 2014, 79~105쪽.
- 성현경, 「<沈淸歌>의 형성과 변모 과정」, 『고전문학연구』 9, 1994, 한국고전문학회, 237~263쪽.
- 신동훈, 「구술담화의 서사적 지향과 그 역사적 가치- 전설에 깃든 역사적 진실과 각성의 힘」, 『통일인문학』 57, 건국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4, 37~62쪽.
- 신상필, 「파리와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 - Grammaire Coréenne (1881) 소재 단형고전서사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49~380쪽.
- 안상훈, 「백두산 설화의 전승과 연행양상 - 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251~284쪽.
- 오운선, 「한국설화 영역본(英譯本)의 현황과 특징 일고찰 : <견묘쟁주설화(犬猫爭珠說話)>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1,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1, 207~239쪽.
- 오운선, 「19세기말 20세기초 영문(英文) 한국설화의 자료적 가치 연구」, 『우리문학연구』 41, 우리문학회, 2014, 145~179쪽.
- 이상현, 「물허진<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 장정아,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 -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refleuri』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09,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167~191쪽.
- 장정아·이상현·이은령,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II):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refleuri와 볼테르 그리고 19세기 말 프랑스문단의 문화생태」, 『한국프랑스학논집』 95, 한국프랑스학회, 2016, 83~111쪽.
- 전성희,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2008, 261~297쪽.
- 전상욱, 「<춘향전> 초기 번역본의 변모 양상과 의미- 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 -」,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119~147쪽.
- 최성운, 「근대 초기 서사 텍스트의 저작, 번역, 번안 개념에 관한 고찰 : 근대 초기

-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19~240쪽.
- 최윤정,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1920년대 『조선동화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87~314쪽.
- 최지희, 『알렌 『토끼전』 영역(英譯) 과정에서의 변개지점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80, 2017, 421~454쪽.
- 최진형, 『<심청전>의 전승 양상- 출판 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19, 2005, 181~212쪽.
- 황인순, 『근대 프랑스어설화집의 기술 체계 연구 -<거울, 불행의 원인>을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45, 한국구비문학회, 2017, 305~338쪽.

ABSTRACT

Study on Modern Korean Folktales Described in French

—Comparing with the translations of *Simcheong*

Hwang, In-soon

This essay will analyze the three representative french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n 1900s as the difference of translation signify the diversity of perspectives. The objects of study include *Le Bois sec fleuri*, *Contes Coréens* and *Miroir, Cause de Malheur!* In these books, *Simcheong* is the only narrative choosen in common.

It is divided in two different levels of transformation in modern translation: content-formation and language-formation. From these elements, individual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is completed and *Simcheong* demonstrates their own signification with certain adaptation as well as translation itself. Therefore, these specified perspectives represents how modern subjects cognized and present this strong and unfamiliar time, modern times.

Key Words *Le Bois sec fleuri*, *Contes Coréens*, *Miroir, Cause de Malheur!*,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Simcheong*

논문투고일 : 2018.07.15
심사완료일 : 2018.08.13
게재확정일 : 2018.08.24